**오디션 대사**

#1 (빛에 허덕이는 청년의 모습) NA: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?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이 나를 더 무력하게 만듭니다.

#2 (공원 벤치에 앉아 빵과 우유를 먹으며 허공에 초점 없는 시선을 두고 있는 영주의 독백) 지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. 가족을 위해 제 명의로 카드론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만 했어요.

#3(택배 상하차를 하며 힘들게 땀방울을 닦아내는 경호의 독백) 병상에 있는 엄마를 돌보기 위해 아르바이트는 닥치는 대로 했어요. 하지만 병원비는 제 힘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웠고, 결국 비상금 대출을 사용해야 했습니다.

#4(화면을 응시하는 영주와 경호의 대사\_공통) 이 빚의 개미지옥을 제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?